

대학과 사회현실의 가능성

기 자 논 단

대학신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소고

사회의 다변화, 국제정세의 급변, 체제내적인 변화 등 현실사회의 규정을 주위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고도화·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유통과 정도도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정부의 통치수단도 더욱 고도화되었음은 재현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정보의 유통과 정도에서부터 선별·보완하고 사색하는 문지기들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정보의 유통 자체를 막기도 한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법률의 정보수집 능력이나 분석,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는 능력도 팔목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기업들이 예전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했던 사보의 경우 사업장마다 늘어나는 노동조합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노보에 대한 대립적인 기능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사보는 더욱 이데올로기화, 개량화되어가고 노보는 독자층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화이트칼라 노동자뿐 아니라 생산직 노동자에게도 계급적 환상과 기회주의가 유포되는 '성파'를 사보가 해낸 것이다. 매체를 통한 선전·역전전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이다.

대학신문 또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며 매체를 통해 변화된 사회를 나름대로 반영해내고 있다. 해방이후 남한사회는 역대정권의 강요된 지배논리에 의해 사회의 전분야에서 거의 제한된 상태

를 거절하자 제작중지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간 학생기자가 써오던 사실은 무절제하고 책임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신문의 발행권·편집권·예산권 등의 문제들이 6공 정권 이후 구조적으로 고도화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6공 정권이 형식민주주의와 개량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본논리와 지배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키기 위해 KBS투쟁 등 제도권언론의 부분적 자율성조차 억누르는 상황에서 대학신문의 권

침에화되는 한편 독점자본과 개량화된 중산층의 오도된 인식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더욱더 보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양적으로 팽창된 반면 질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으며 이 모순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예체능계 입시부정, 사치성 예술품, 싸잡히 해외관광 등 가진 자들의 거대한 황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의 범죄가 우리 사회를 더 혼란에 허덕이게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가진자들의 수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독점자본과 거액 불로소득자의 소득과 소비성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회의 전체 부(富)가 몇몇 개인 부(富)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때 '기차의 레일 끝은 남퍼러지'일 것이라 믿는 우민(愚民)들의 파격적 충동범죄를 꼭 그들의 도덕성과 인간성만 도마에 올려놓고 재판(裁判)을 가해서는 안된다.

대학이 이러한 현실사회의 '순수한' 한부분에 존재한다고 해서, 대학신문이 원론적인 논리만을 강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과제

제가 이러한 대학신문이 단지 학술·문화·기술적인 기능만을 부각시킬 수는 없다. 대학신문은 대학 안팎의 제반 상황과 모순을 깊이있게 바라보고 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매체이어야 한다. 대학이라는 공간내에서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은 대학신문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의 역할과 대학신문의 역할규정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만환 記者〉

시평론 — 경희문학상 수상한 신광호 시인의 작품세계

백두산 천지에 민족 염원을

시인은 특유의 자의식에 의해 시적 세계를 표상하게 된다. 특히 자기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는 '자아'와 밖의 '세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좌절과 갈등, 소외의 혼돈속에서 동일성의 차원으로 자기 합목적적인 세계를 추구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광호는 '백두산천지(白頭山天地)' 등 일련의 기행시의 형식을 빌어 정서적인 세계인식에 새롭게 접근해 가고 있다. 종교인들의 성지 순례가 자신의 신앙을 구체화하고 체험한다는 뜻에서 의의가 있다면 이 시평들에선 시인의 오랫동안 금지와 열망속에 살아있던 정신적 지향성이 시적 표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감격과 경악으로 받아지는 민족의 정기가 샘솟는 곳으로 향하는 서정적인 신비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높은 산맥은 낮은 산들을 거느리고 골짜기를 이끌어 푸른 논과 밭이 줄을 서고 흰구름 사이 물결은 커다란 강과 바다로 몇 시대를 줄달음치고 백두산 가는 길 이여 낮은 길 멀리 돌아 ~('백두산에 이르는 바람'의 앞부분)

담담하게 이어진 사실적인 묘사가 감격적이다. 언어가 시적기능을 다하게 될 때 그들은 유기적이며 탄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산맥이 '~거느리고', '~이끌어' 주는 힘찬 활동적인 이미지는 바로 시인 스스로가 오랫동안 의미를 주고 있던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함몰일 수 있다.

또 논과 밭이 '~줄을 서고', 물결이 '~몇 시대를 줄달음치'는 모양은 우리민족의 서사성을 간명히 처리한 것으로 오늘날의 역사적인 실상을 인식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백두산에 이르는 바람'의 중반에는

눈서리 비바람속에서도 꽃피어 빛나는 우리 겨레 역사의 언덕 용정 땅 지나 좋은 새한 고갯길 넘어 두려움 함께 찾아 피면 천지의 어른님 바람결에 맞이 하시네 눈물로 젖은 가슴 씻으려 왔다가 백두산 마주하여 입다물었다네

라고 가슴속의 진한 감회가 드러난다. 백두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풍운의 세월을, 바람결에 실감하는 감성이 짜릿한 감흥을 자아낸다.

여기서 지칭하는 '천지의 어른님'이란 누구를 말할까. 종교의 차원이나 개인적인 특정대상이기보다는 우리민족 모두의 염원, 집단의식으로서의 비원의 상징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던 곳인가.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의 망명이요, 신화의 발상지로서의 백두산을 향한 우리의 비원이 실현되는 순간의 감격이 담겨있는 시이다.

이 밖에도 일련의 기행시들이 환상처럼 다가오는 이국풍경에 힘입어 읽는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박 이 도
〈문리대교수·국문학〉

담담한 사실적 묘사기법 살린 기행시

개량적인 현실변화... 구조모순은 그대로

다양한 소재, 본질분석 및 대안제시 필수적

에 대한 전방까지를 제시해야 하는 대학, 그 안에서 대학신문은 어떠한 역할을 규정받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대학신문은 일간지나 각종 매체들이 즐겨 쓰는 언론의 개념은 벗어나야 한다. 작게는 대학내의 정보, 학술, 문화의 종합지로서 크게는 대학이 담담할 수 있는 거의 전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논평, 비판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대학신문이 누구의 매체인가, 누구를 위한 매체인가 하는 논의가 분분하다. 학내에서 신문의 발행권·편집권의 분규가 있어왔다. 송실대는 한 신문에서 학교·학생·교수·학부·학과를 반반으로 신자는 학교당국의 요구를 학생기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중지된 예가 있었다. 외국어대의 경우 사설의 반을 교수가 써야 한다는 학교측 요구

집자유권을 단순히 정부 또는 학교당국과의 마찰소재가 아닌 대학신문의 존립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대학신문의 원칙은 추상적인 명제와 이분법적인 안보논리로 설 명될 것이 아니라 신문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건전한 문제의식과 비판이 수반될 때 추구할 수 있다.

대학에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인 학문과 함께 사회변화의 한 동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회변화의 방향을 이끌어내야 할 수 있다. 한 학과에서 저지른 위기를 차치하고 있는 대학신문이 그간 사회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역설해왔던 오류를 지적하며 대중적인 신문,

적인 양태를 의면하고 이를 피해가려는 소인배적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그 안에서 대학 자체도 변해가는데 이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변혁의 운동을 의면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책임있게 살아간다고 하겠는가.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학신문의 위치도 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대학신문의 문제점만을 '눈이 빨갛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제반 현실상을 성실하게 조망하고 폭로된 현실세계를 정확하게 분석, 비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그 대상과 소재는 다양하지만 주제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지배권력의 폭압수단은 더욱

학술정보

동아시아 연구회 세미나 27일, 본관3층 세미나실서

대학원 동아시아 연구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본관 3층 세미나실에서 '소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붉은 혁명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소련의 역사부분을 이인호(사학·석사 17기) 씨가, 소련의 법제도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경제 개혁에 따른 법제의 개편부분을 김기영(법학·석사 27기) 씨가 발표하게 되며, 조영원(정경대·정치학), 신승철(문리대·사학) 교수 및 회원들이 참가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길을 찾는 사람들' 창간 진보언론 구축 선언

지난 9월 창간을 앞섰던 무크 '길'이 지난 10월 월간지로 나오게 되었다.

'민중시대의 진보언론'이란 표제를 달고 나온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편집장 신경준)은 월간지 등록필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보인 무크의 창간사에서 '운동권의 성과와 한계에서 출발하고 그를 뛰어넘어 사회적, 국민적 지지라는 참여속에서 진보언론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진로를 밝힌바 있다.

생물학과, 졸업논문 발문 26일, 대학원 세미나실서

생물학과 학생회는 내일 오전 10시, 본관 4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졸업생 학술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졸업생들이 3학년 때 설정한 주제를 가지고 올해 실험, 연구한 결과를 총 21개 논문, 40여명이 발표하게 된다.

한외대 학생회 강연회 한방 공중보건사업 확대위해

한외대 학생회는 12월 9일 오후 8시 한외대 본관 3학년 강의실에서 '공중보건 한외대에서의 시범사업 전국확대 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월남참전요인' 세미나 26일 도서관 세미나실서

현대 한국정치연구회는 내일 오후 5시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군 베트남 참전의 결정 요인과 결과 연구'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에 이기중(호텔전대. 정의와 71학번) 교수가 맡게 되며, 정범구(정의와 71학번. 감사)씨가 토론을 진행시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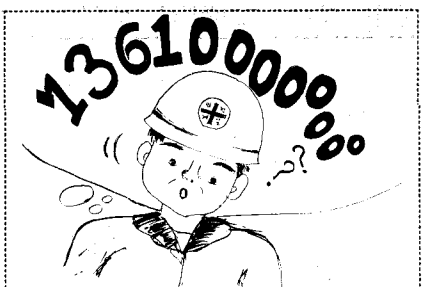
고래와 새우의 함수

옛말에 있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의 이면에는 생물의 세계에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 한편 이러한 사실들을 뛰어 넘어 '평등'을 추구하고자 부단히 분투하는 종족이 인간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가운데 현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 위에서 말한 고래와 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 사회에서 두 고래는 이른바 권력과 자본인 모양이다. 민중에게 대해 광폭한 탄압을 일삼는, 국민을 우매화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 유포에 큰 몫을 하는 정권과, 그러한 정권에 자본이라는 일길로 권력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하려는, 소득도 아닌 세금을 1천 3백 61억원을 내야 하는 재벌들은 가히 고래라 지칭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새우는 누구인가? 바로 정권과 재벌에게 의면된 채 그들에게 이끌려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한달 50만원의 월수입자가 지출없이 꼬박 2년 2천 6백 83원을 저축해야 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는 소수 재벌들의 가용할 만한 재산은 상상도 못하는 민중들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새우와 고래를 가시화시킨 이번 현 대 납세사건을 보는 견해도 다양하다.



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조처를 내년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한 논의를 하고 싶지 않음은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법대로의 적용'이라는 명제 아래 실랑이를 벌이는 정부의 처사는 우선 민중

의 생존을 보장해 주려는 의지에 있기 보다는 그 재벌 세력과의 뒤얽린 권력의 현상에 다름아니다. 또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도 그 만큼의 세력을 가진 재벌들의 감성적 불복반응은 그 이전의 정경유착 매듭의 두께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보면 두 고래의 공방전은 세인으로 하여금 지배연합력에 대한 불신의 벽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셈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기회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냐 고안된 민중의식으로 터질지 절대 없지만 민중들의 마음은 거대한 재력에 실상 위축되기 십상이다. 기정사실화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정부와 비생산성 이용주주, 비리로 일쑤인 재벌들의 속성을 비판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하학적 숫자인 1천억 원의 세금을 함께 들먹이는 현실에서 민부의 차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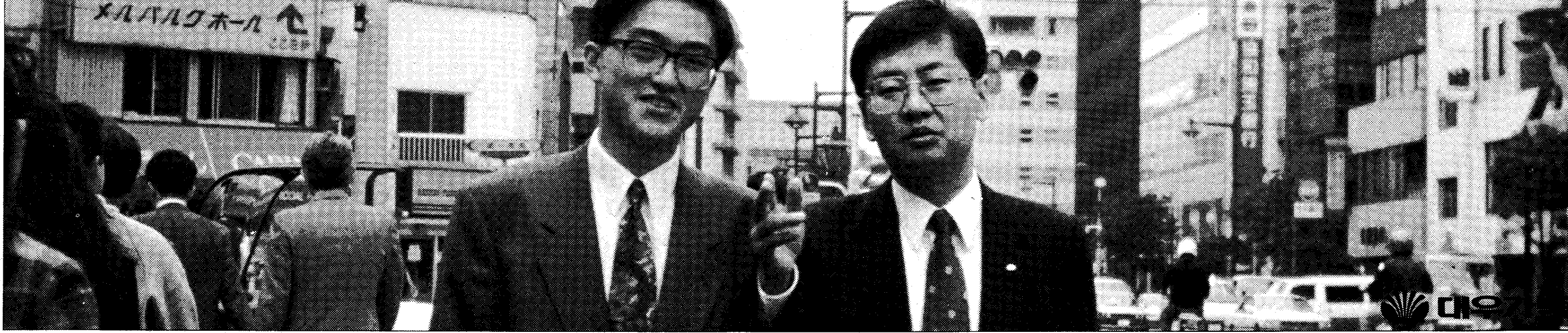
민중들은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이번 사태를 씁쓸하게 지켜볼 것이며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으로의 회귀에 대한 경계태세를 갖출 것이다.

또한 고래와 새우의 공존논리를 부정하고 자결단의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가는 뜻은...”



▲뒤로 일본 경제의 상징인 국제무역센터와 도쿄타워가 보인다.
▼대우증권 청간담장 일본국 파견관 인사원으로 인사한 이영범군. 도호 '우익의 거리'에서 정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선배님 활약상은 서울에서도 익히 들었었지만 막상 보니 정말 굉장하네요. 신입사원으로서도 감히 염두도 못낼 만큼 바빠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중심부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참, 금년 인턴사원으로 대우에 입사했잖아.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대우인이 된 소감이 어떤가?

실시간 동안 선적업무에 맡겼었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일에 대한 정열과 희생의 가치관이 왜 필요한가를 피부로 많이 느끼기도 하구요. 역시 대우에 입사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일하다보면 더욱 그렇지. 더구나 일본같은 나라와 경쟁하라는 대우 특유의 창조와 도전정신 없이는 힘들어.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삼각무역, 현지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당당히 국제화의 길을 걷어가고 있지.”

“세계 64개국 84개 해외지사에서 선배님같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을 생각을 하면 세계 속에 대우가 아니라 세계가 곧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앞으로 선배님 못지않은 국제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와 같은 활기찬 후배사원을 만나게 돼서 마음 든든하네. 우리 함께 국제화의 길을 넓혀 보자구.”

오늘도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키워나가는 국제화의 주역들. 그리고 많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